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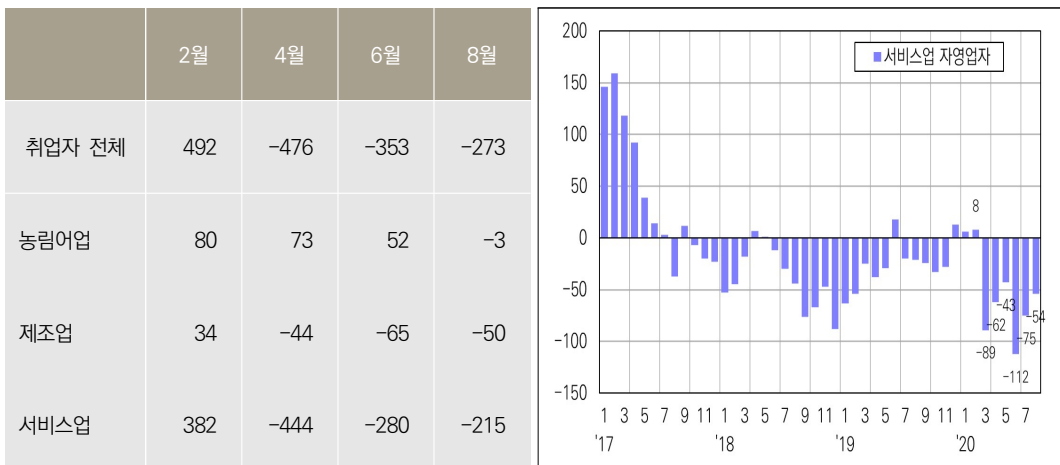
코로나19 이후 생활업종별 사업자 수 변화

○ 국세통계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자 수 변화에 대해 살펴봄.

-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은 대면 서비스업 위주로 나타나 해당 업종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.
-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시행 등 방역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업황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서비스업 자영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논의 중임.
-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¹⁾는 2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 중임.
-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국세통계상 월말 기준 사업자 현황을 이용하여 생활밀접업종의 고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.

[표 1, 그림 1] 산업별 취업자 증감(2020년) 및 서비스업 자영업자 월별 증감 현황

(단위 : 천 명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원자료, 각 연도.

1) 자영업자는 종사상 지위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합을 의미함.

○ 2020년 6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²⁾ 사업자 증감 현황³⁾을 살펴보면, 주점업과 구내식당, 기타 음식점 등의 사업자 감소가 눈에 띈.

- 사업자 감소 정도가 가장 큰 업종은 간이주점업⁴⁾으로 전국 기준 1,795명 감소(-11.8%)했으며, 지역별로는 사업자가 많이 분포한 수도권(서울, 경기)에 감소가 집중됨.
- 호프전문점 사업자도 3,000여 명 감소(-8.8%)하여, 코로나19 이후 주점관련 업종 사업자 감소가 크게 나타남.
- 음식점의 경우 경기지역 사업자 감소(-14.2%)가 컸음.
- 코로나 19로 방역지침으로 각종 회사, 학교,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영업을 제한되면서 사업자 수도 감소(1,555명, -6.9%)함.
- 피자, 치킨 등의 기타음식점⁵⁾(-5.9%), 노래방(-2.7%), 목욕탕(-2.5%) 등의 사업자도 감소함.

〈표 2〉 전국 및 코로나 확진자 발생 주요지역 생활업종별 사업자 증감 현황(2020년 6월 기준)

(단위 : 명, 전년동월대비)

	간이주점	호프전문점	구내식당	음식점	기타음식점	노래방	독서실	목욕탕
전국	-1,795 (-11.8)	-3,025 (-8.8)	-1,555 (-6.9)	-67 (-7.2)	-1,426 (-5.9)	-1,153 (-3.7)	-265 (-2.7)	-138 (-2.5)
서울	-684 (-13.8)	-740 (-10.2)	-410 (-9.8)	-4 (-2.4)	-348 (-7.3)	-199 (-3.4)	-228 (-6.4)	-40 (-5.4)
경기	-253 (-8.5)	-562 (-7.9)	-367 (-6.7)	-21 (-14.2)	-311 (-5.5)	-217 (-3.0)	-107 (-4.4)	-34 (-4.4)
대구	-46 (-15.6)	-35 (-6.1)	-75 (-8.0)	-1 (-2.4)	-92 (-7.2)	-96 (-5.5)	4 (1.0)	-16 (-5.9)
경북	-47 (-11.5)	-54 (-5.2)	-110 (-8.0)	-2 (-3.0)	-16 (-1.4)	-95 (-5.8)	16 (6.9)	-7 (-1.7)

주 : 100대 생활업종 중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기준 평균적으로 사업자 감소가 큰 업종을 6월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함.

()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율임.

자료 : 국세청, 「월별공개 사업자 현황」, 각 월.

○ 사업자 수 감소가 컸던 업종들의 추이를 살펴보면, 주점관련 업종에서 비교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사업자 수 감소 속도가 빨라졌음을 알 수 있음.

2) 100대 생활업종이란 국세청이 발표하는 소매, 음식, 숙박 및 서비스업 등에 속하는 업종 중에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(용역)을 판매하거나 취급하는 업종을 뜻함.

3) 월말 기준 사업자 현황 속보치로, 추후 공개되는 확정치와는 다를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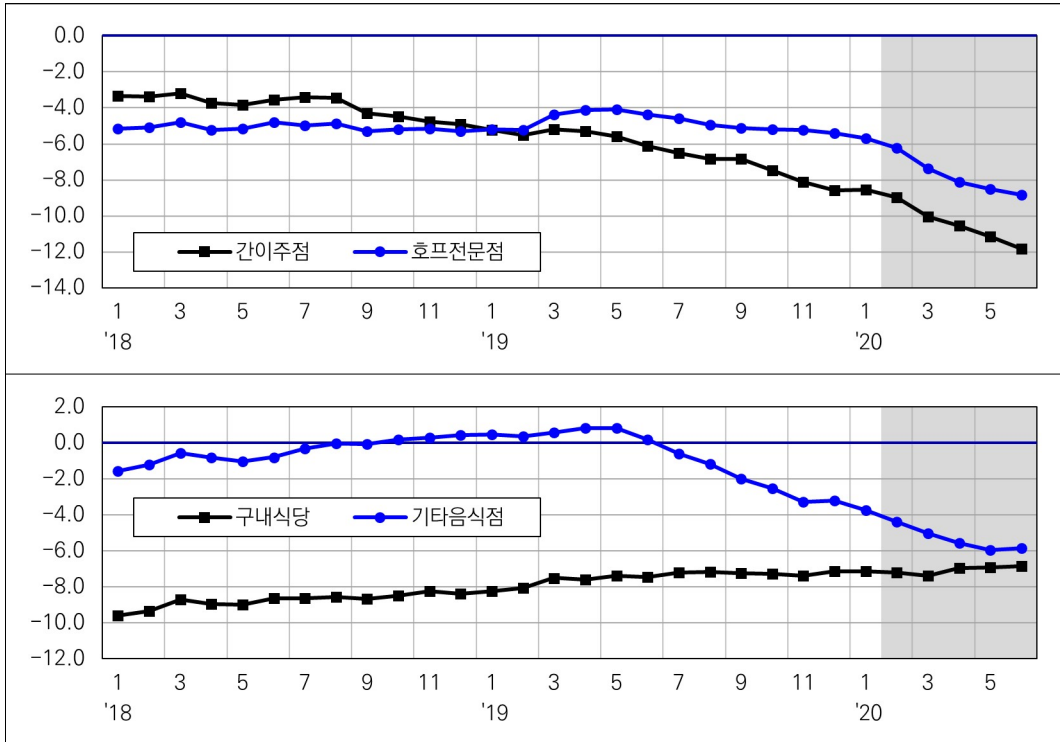
4) 간이주점은 선술집 및 기타 간이생맥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점을 의미함.

5) 기타음식점은 피자, 치킨, 간이양식, 아이스크림, 샌드위치, 토스트 등 체인화된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를 의미함.

- 간이주점, 호프전문점 모두 추세적으로 사업자 수 감소가 나타나는 업종이었으나 코로나 19 영향이 본격화됨에 따라 사업자 수 감소폭이 커졌음.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평균 사업자 감소율이 2019년 동기간 평균 감소율에 비해 크게 나타남(간이주점 -5.5% → -10.5%, 호프전문점 -4.4% → -7.8%)
- 기타음식점 사업자 수는 5개월 동안 5.4% 감소하여 전년 동기간(0.6% 증가)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나 전체적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업자 수 감소 추세하에 있음.
- 구내식당 사업자 수 변화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줄어들고 있음.

[그림 2] 코로나19 영향 전후 전국 생활업종 사업자 증감률 변화

(단위 : %, 전년동월대비)



주: 음영은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 이후를 뜻함.
 자료: 국세청, 「월별공개 사업자 현황」, 각 월.

○ 월별 생활업종 사업자 수 감소는 주점업과 음식점 관련업 중심으로 나타남. 그동안의 추세보다 더한 감소는 주점관련업에서 나타남.

(김종욱,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)